

# 화엄사상의 장엄미 탐구한 미의 순례자

《법공과 장엄》 펴낸 강우방 국립경주박물관장

강우방 국립경주박물관장이 두번째 논문집

《법공과 장엄》을 펴냈다. 이번 논문집의 표제로 삼은

‘법공과 장엄’은 불교조각사를 관통하는 철학적·

미학적 원리다. 강관장은 이 책에서 통일신라 시대 불교예술의

조형원리를 탐사한 결과 종교의 예술적 행위인 장엄에는

비례의 원리가 관철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신라 천년의 숨결을 담고 있는 국립경주박물관. 좌우로 돌사자상과 쌍거북 비석받침의 무심한 시선을 받으며 정문을 들어서면, 바로 맞은편에 저 멀리 선도산을 등지고 선 성덕대왕 신종이 천상의 소리를 간직한 채 적멸에 쌓여 있다. 본관에는 선사시대 토기와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에 걸친 석불과 금동불들이 역광을 거느린 채 세월의 마멸을 견디고 있다.

본관 1층 관장실에 들어서자 강우방 국립경주 박물관장(58)이 신종을 바라보며 섰다가 반색하며 맞아준다. 마음 속에 울렸을 종소리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표정이다. 보살상을 닮은 온후한 미소가 안면 가득하다. 책상 위에는 《원융과 조화》 이후 펴낸 두번째 논문집 《법공과 장엄》(열화당)이 두툼한 질감으로 놓여 있다.

## 법공의 진리 형상화하는 장엄의 원리

이번 논문집의 표제로 삼은 ‘법공(法空)과 장엄(莊嚴)’은 불교조각사를 관통하는 철학적·미학적 원리다. 지난 1991년 <불사리 장엄전>을 기획하고 논문을 쓰면서 얻은 것으로, 1990년 출간된 첫번째 논문집 제목인 ‘원융(圓融)과 조화(調和)’를 한단계 높인 개념이다.

“보통 미술사를 연구할 때 한국적인 특수성을 찾으려 합니다. 고유성 선행이 개념화한 ‘무계획의 계획’이 바로 그런 거지요. 하지만 우리 조상



강우방 국립경주박물관장

들이 인류의 위대한 예술과 견줄 수 있는 보편성을 추구했다는 것도 밝혀야 합니다. 법공과 장엄은 이런 의도에서 고안해낸 개념이지요.”

강관장에 따르면, 법공과 장엄은 진리와 예술의 불교적 표현이다. 법공이란 불교의 궁극적 진리를 가리키고, 장엄이란 불교미술의 조형적 장식을 말한다. 초세속적일 수밖에 없는 법공은 장엄의 수단을 빌리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 다시 말해 문자언어로 된 불경보다는 조형언어로 된 장엄이 가장 순수하고 완벽한 이상세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불교 조각사에서 법공과 장엄의 금맥을 찾아가는 예술적 발굴기다. 통일신라 시대 장엄미의 극치를 이룬 불국사, 석불사(석굴암), 성덕대왕 신종의 조형원리를 탐사한 결과 강관장

은 두가지 결론에 이른다. 종교의 예술적 행위인 장엄에는 비례의 원리가 관철되며, 모든 위대한 예술작품의 내면에는 반드시 위대한 정신이 깃들여 있다는 것이다.

“장엄의 원리인 비례는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교향곡처럼 개별 악기의 소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없지만 이들이 한데 모여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화음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부분과 전체는 유기적 통일성을 이뤄야만 최고의 이상적 진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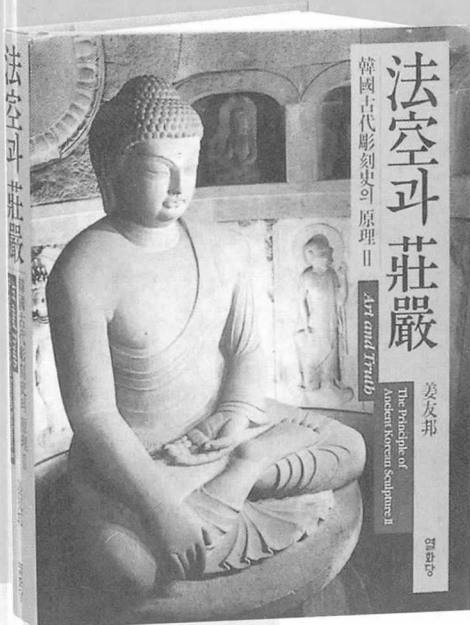
법공과 장엄의 개념은 더 나아가 화엄사상으로 이어진다. 하나와 일체가 밀접하면서도 뿔 수 없는 관계를 이룬다는 화엄사상의 ‘일체즉일 일즉일체’(一切卽一 一卽一切)는 우리나라의 조형 예술에 담긴 근본사상이다.

“특히 석굴암과 불국사는 불교가 지향하는 정신적 깨달음의 상태[正覺]를 조형미술로 완벽하게 표현해 화엄사상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정각은 불교에만 그치지 않고 모든 종교와 사상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라는 점에서 보편성을 띠니다.”

## 위대한 예술에 담긴 위대한 혼

여기서 위대한 예술작품에는 고매한 사상이 담겨 있다는 두번째 결론이 나온다. 위대한 정신은 완전하고 아름답게 표현돼야 하고 그것을 만든 예술가의 정신 또한 고매해야 한다. 그 시대의 정신 역시 드높아야 아름답고 위대한 예술이 탄생한다는 것이다.

“정신이 성숙하지 않으면 위대한 예술작품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대한 정신이 담긴 예술작품이 가장 위대합니다. 르네상스 예술에는 인본주의 사상이 담겨 있듯, 우리의 불교미술은 조화와 초월의 정신인 화엄사상에 기반해 있습



열화당/B5/582면/50,000원

니다.”

범공과 화엄이 한국 불교예술의 보편성을 나타낸 것이라면, 한국적 미술의 특수성은 파격미에 있다고 강관장은 강조한다. 신라 토우나 조선 시대의 분청사기, 민화 등에는 미완성성·비대칭성·자유분방함의 한국적 유머감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가장 한국적인 미의식을 들려면 나는 파격미를 꼽습니다. 한국미술은 중국이나 일본미술처럼 끝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한 것이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서 유머와 자유를 발

견하고 천진스러움과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 예술의 표현원리 못지 않게 강관장이 고심하는 것은 미술사 연구방법론의 수립이다. 그는 문헌연구를 통한 작품 해석보다 ‘감응’과 ‘추체험’을 강조한다. 우리가 매화 옆을 지날 때 발길을 멈추고 그 향기에 취하듯, 예술품 앞에 멈춰 서서 그것에 스며 있는 미의식과 시대정신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술사를 강의할 때는 반드시 현장에 갑니다. 그래야 작품을 관찰하고 비교연구하면서 작가의 정신과 의도, 더 나아가 시대정신까지 되살릴 수 있지요. 작품과 교감하지 못한 지식은 쓸모가 없습니다.”

#### 오욕의 시대 견디게 한 글쓰기

이 책에 수록된 논문들은 1990년부터 98년 사이에 씌어졌다.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 강관장은 90년대를 참담한 시대로 기억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을 철거하는 등 문화적 야만주의가 횡행하고 권력과 금전지향적인 사회는 그에게 치욕과 모멸감을 안겨줬다. 이런 오욕의 시대를 버티게 한 힘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자서전 《안전은행증》과 글쓰기를 통한 저항이었다.

“1960년대 초반 정치적 혼란기에 대학 도서관에서 파스테르나크의 자서전을 읽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혁명의 혼란기에 휩쓸리지 않고 역사의 증언자로서 살아남아서 위대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에게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의 지혜를 배웠지요.”

강관장이 한국미술의 근저에 흐르는 정신성을 탐구하는데 남다른 열정을 쏟은 것은 예술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현대 예술에 대한 그의 비판의식이 깔려 있다. 예전에는 예술가가 시대를 앞서서 대중을 이끌었다면, 지금은 예술가들이 오히려 대중에 영합하면서 타락하고 있다는 것이

다. 그는 여전히 예술의 계몽성을 믿는다.

그는 왜 하필 불교조각사를 필생의 업으로 삼게 됐을까. 분명하지는 않지만 경주와의 운명적 만남이 자신을 이 길로 이끌지 않았을까 짐작할 뿐이다. 대학과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다 불현듯 기억해낸 것이 경주였다. 박물관 학예직 자리를 얻어 경주에 내려왔을 때 그는 남산의 삼릉계에서 관음보살의 미소를 만났다. 그의 신명어린 유적답사와 미술사 연구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대학시절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탐독했습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자기를 초극해가는 초인을 그린 이 책은 미래지향적인 선언을 담고 있지요. 그런데 묘하게도 내 인생의 방향은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우리의 문화와 예술이 정신적으로 천박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아니었을까요. 과거로 돌아가면 심오한 세계를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겠지요.”

#### 옛 풍광 속에서만 문화유산은 빛난다

강관장은 근래 불기 시작한 문화유산 답사 열풍을 마뜩찮게 여긴다. 대중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그만큼 문화유적이 훼손돼버렸기 때문이다. 답사문화가 과거 정신과의 진지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의 놀이문화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안타까움도 깔려 있다.

“문화유적을 답사하는 것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로 이어진다면 구태여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하지만 대중들의 인식수준은 제자리고 문화유산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청강연장에 나갈 때마다 문화유산을 스스로 관찰하고 거기에 담긴 정신을 음미하라고 충고합니다.”

그가 유적·유물을 발굴하거나 답사하면서 늘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사진기록도 유물해석의 한 방법이라는 생각과 함께 유적이 훼손되기 전의 모습을 담아두고 싶어서다. 옛 풍광과 정적 속에서만 문화유산에 스민 민족의 영혼과 교감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기도 하다.

강관장은 오늘도 분황사와 황룡사터, 그리고 신라의 왕궁터 반월성을 바라보며 출퇴근길에 오른다. 천년 전 신라인들이 남긴 정신의 지문 같은 유적의 아름다움에 취하면서 그는 스스로 다짐한다. ‘미를 전도하며 미의 순교자가 되리라’고

— 경주·박천홍 기자